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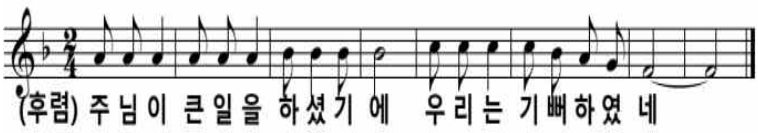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예레미야 31,7-9

화답송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제2독서 | 히브리서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0,46ㄴ-52

성가 | 입당성가 [24] 1,2절 예물준비 [216]
영 성 체 [496] 파 견 [270]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신균 요한	익명
고현실 미카엘라	최은자 세실리아
고용복 베드로	고원혜 마리아
문대천 안토니오	-
문귀영 베드로	송용원 파트리치아
이순영	이영애 레지나
이순영	이병국 이지훈아네스
최규혁 미카엘	이아오스딩
최규혁 미카엘	민바울라
이종란 크리스티나 기일	한안나, 데레사
부기자 헬레나	이정현 헬레나
생미사	**봉헌**
이남석베드로 이서원마리로사 가정	박정호로사
이남석베드로 이서원마리로사 가정	이은경헬렌
임영애 스텔라 건강회복	강혜숙 바울라
이정근 미카엘, 이경호 율리안나	이정현 헬레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0월 27일	김유화	이태주	민덕미	민덕미	유정옥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11월 3일	김진수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김종선	한데레사 조바실리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오늘(10/27)	우리즐거움의 원천 Pr.(이기원)	꾸리아 주관

▶주일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11월 유아세례 신청받습니다.~

일시: **11/10(주일) 09:15 미사중.** 신청: 347-834-5784

"신앙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아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맘대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훼손하는 건가요?" 학교가기 싫다고 떼쓴다고 『너의 자유이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것을 막지 말라』(Mk10,14) 하셨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유아세례에는 부모의 책임이 요청됩니다.

▶김가롤로 신부님을 위한 영적예물

오는 11월 3일 영명축일을 맞으시는 신부님을 위한 영적예물 받습니다. * 묵주 기도: 개인당( )단, 미사: 개인당( )번

* 단체장들은 회원들의 기도를 모아 사무실앞 수거함에 넣습니다.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세요." **일시: 매주일 11시,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4/19일(토) *신청: Sr.효주 347.834.5784

▶교리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일시: 10/27(주일) 오후 2시 30분, Sr.효주 사무실

제 19회 사랑의 음악회 Love Concert

날짜: 11/6(토) 7pm
장소: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성당
티켓: $25, 15세 이하 무료
티켓예매: QR코드 접속
또는 친교실 음악회 티켓 판매처
*수익금은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우간다 아테데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쓰입니다.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토요반(2,4째주)	10am~11:30am	교육관 B1 Fr.김가롤로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사도행전~요한묵시록

주일반(매주)	12:40pm~1:50pm/ 교육관 B1	Sr.김효주
목요반(매주)	10am-11:20am/ 교육관 3A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직접 방문교리' 또는 '단기 출석교육' 가능합니다.

신청: 사무실 347.83.5784

▶14차 성장세미나, 성령안에서 영적성장 원하시는분

일시: 10/27(일)~30(수), 3박4일 장소: 마리안 쉬라인

지도단: 성령쇄신 조민현 요셉 지도신부와 미동북부 사제단

신청마감: 2024년 10월13일(일)/ 참가비: $420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미숙안나 917-579-5072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미사지향 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일미사후 친교실 또는 사무실.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Daylight Saving Time Ends

오늘(11/3) 새벽 2시부터 섬머타임 해제 됩니다. **미사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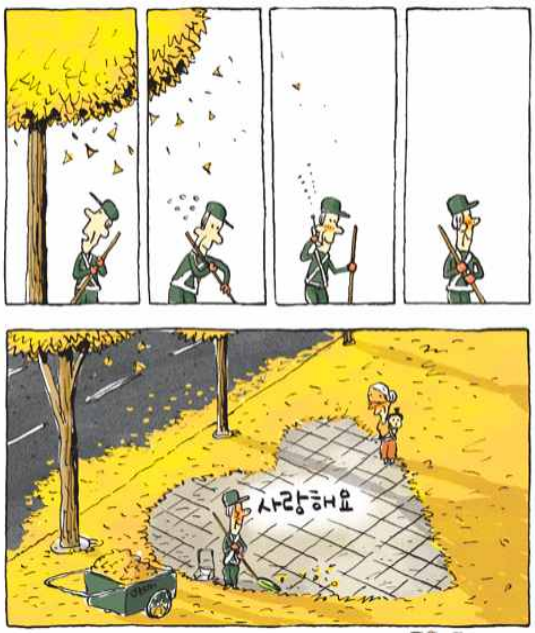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사랑은'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선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오스카 햄머스타인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 clearlaser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마르 10,46ㄴ-52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리코를 떠나가실 때 소경 바르티매오를 눈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리코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성전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머무르는 마지막 휴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아주 많았고, 그만큼 걸인들도 많았습니다. 바르티매오는 그런 걸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바르티매오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7)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8) 하고 외쳤습니다. 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르티매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마르 10,50) 여기서 겉옷은 구걸을 할 때 쓰던 도구로서, 우리로 치면 구걸하는 바구니나 깡통같은 것입니다. 바르티매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구걸하던 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지금까지의 구걸 생활을 그 자리에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곧바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마르 10,51) 하고 물으십니다. 그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마르 10,51)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10,52)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의 말씀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바르티매오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바르티매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르티매오가 사람들의 비난과 꾸짖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를 부르짖었던 모습에서 그의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결국 그의 눈을 뜨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에서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방금 전까지 구걸 생활을 하던 거지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나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 한 소경의 치유가 아니라 한 소경의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붙들었고,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만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바르티매오처럼 정말 간절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고 뭔가를 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대부분 은 예수님께 몇 번 청하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바르티매오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